

투데이 칼럼

최고의 산불대책은 '부주의' 예방

코로나 AI, 집중호우 등 범 국가적 재난으로 다사다난 했던 경자년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1월 29일, 무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다소 비장한 표정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알리는 현관식을 진행했다.

봄철 산불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진화의 최일선인 산림청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다. 불법소각 단속, 계도활동 및 k-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하는 등 봄철 주야 산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산불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 논밭 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부주의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442건 중 321건으로 73%에 달한다. 이는 443ha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축구장 면적의 약 554배다. 실로 엄청난 면적이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원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만 노력해준다면 산불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고의 산불대책은 '예방'이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러 측면으로 예방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도가 높거나 환경기치가 높은 산림에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예방

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산불피해지역 토양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30~1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민들은 한 번의 부주의로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아름다운 산림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 상 응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사설

지역소식 전체 제작한 KBS 전북 7시뉴스

KBS 전북 7시 뉴스가 40분 뉴스 전체를 지역에서 제작해 방송한 지 1년이 됐다. 지역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시청자들은 지역 뉴스를 보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신선한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반면 지역 뉴스를 보면 때론 답답하다는 시민도 있었다. 뉴스거리가 한정돼 있고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뉴스에 대한 청년 세대의 냉담한 반응은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실제로 이들은 인터넷 메인에 떠 있는 뉴스를 많이 본다.

검색까지 해 가면서 지역 뉴스를 보지는 않는다.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톺아보는 일은 지역 뉴스의 숙제다.

채용 관련 정보가 눈에 띄거나 연걸이 되면 지역 뉴스를 많이 찾아볼 것이다. 현장감 있게 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필

수다.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 개선점을 방송해주어야 한다.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는 뉴스도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 정보가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정보도 중요하다. 서민들의 삶이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소중하다. 지역민들은 자신의 삶과 보다 밀접한 영역들을 지역 뉴스에서 보고 싶어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집중 취재를 선호한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지역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탐사 보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단신 뉴스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관심하거나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청자도 많다.

지역 방송의 역할과 시청자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지역 중심의 7시 뉴스 1년을 통해 시청자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호남 동행 의원 활동하는 정운천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동행위원장(비례대표)이 최근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호남동행 의원 활동을 사실상 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동행위원장으로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추진했다.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계연혁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남 11개 전체 지역에 50명의 의원을 위촉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호남 동행 의원들은 동행 지역을 방금해 현안 사업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호남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출범 당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정운천 의원의 추진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출범식 이후 국민의힘은 5·18 단체 간담회, 호남 현상 비대위 및 각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표현 발전을 위한 영·호남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호남 동행을 시작했다.

여느 의원은 원주군 동행 의원으로서 전강비밀협단 원주지사(출정소) 신설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수군 동행 의원으로서 장수군의 오랜 열원인 '백두대간 육십림 산림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남 동행 의원들은 민심을 파악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변화년 국민의 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 지도부는 물론 호남 동행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지역 방문 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 등 호남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등하 이러한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간담을 맺는 것을 넘어서 제2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비큐 형상의 트럼프 미 전 대통령



16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거리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조형물이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전통 '로젠몬트' 거리행진은 취소됐으나 정치인을 풍자한 8개의 조형물은 뒤셀도르프 거리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웅산 수치 석방 촉구하는 미얀마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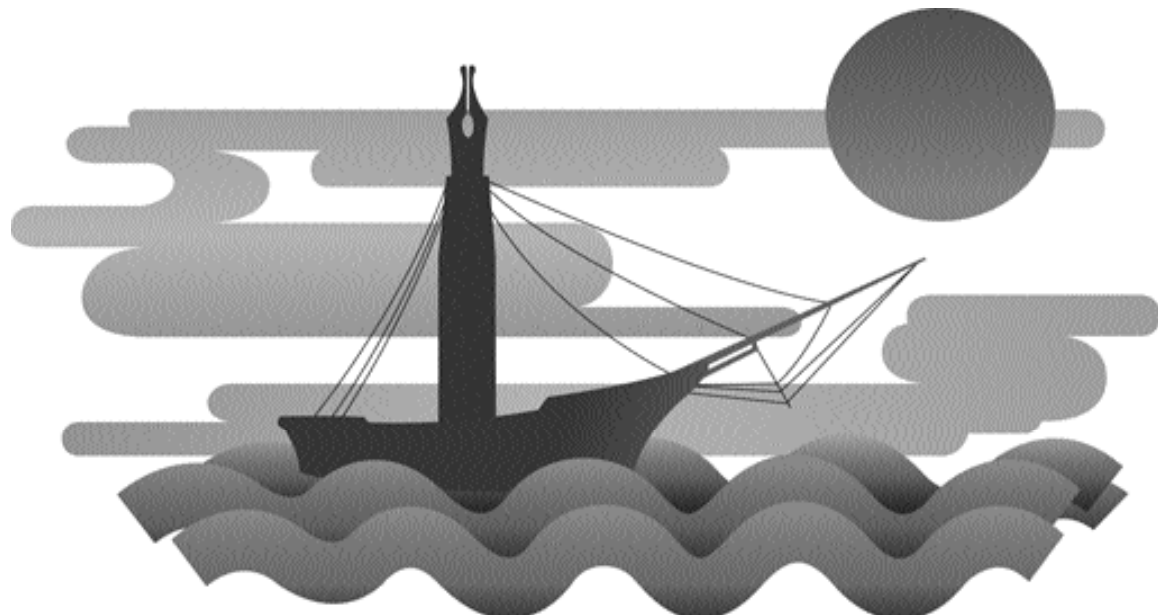
16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모습이 담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총과 막대기 등으로 시위대 진압을 시도했으며 앞서 15일 민로 예정이었던 수치 고문의 구금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해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